

근치적 수술 후 재발한 위암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분석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안재석, 김인호, 손수상

(서론 및 목적) 위암은 국내에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암으로 근치적 수술 및 확대 영역 림프절 광청술, 항암요법, 면역요법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많은 환자에서 재발한다. 위암의 재발 경우 재수술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수술을 할 수 없어, 보존적 치료를 하게 되며 이들 환자의 예후는 매우 불량하다. 그러므로 저자들은 위암의 근치적 수술 후 재발이 확인된 환자를 대상으로 위암의 재발에 관련된 임상병리학적 인자들을 규명하고, 이들의 재발 양상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향후 위암 환자들의 추적 및 수술 후 치료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대상 및 방법) 저자들은 1990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일반 외과에서 위암으로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 1,162명 중 재발 환자 350명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원발암의 위치 및 크기, 육안적 소견, 조직학적 분화도, 위벽의 침윤도, 전이 림프절 수, 병기, 재발 기간 및 사망 기간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술 후 재발 기간과 재발 양상간의 비교, 재발 유무 및 재발 양상과 임상병리학적 인자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위암의 재발 양상은 국소 재발, 복막 재발, 원격 재발 및 혼합 재발로 분류하였고, 재발 기간은 초기 재발(0~24개월), 중기 재발(24~60개월), 만기 재발(60개월 이상)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통계적 처리는 SAS program을 이용하였고 $p < 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과) 근치적 수술을 받은 환자 1,162명 중 350명(30.12%)에서 위암의 재발을 확인하였다. 재발 기간별로 보면 초기 재발 65.3%, 중기 재발 32.1%, 후기 재발 2.6%로 초기 재발이 가장 많았고, 재발 양상별로 보면 복막 재발이 52.1%, 국소 재발 25.6%, 원격 재발 14.4%, 혼합 재발 7.9%로 복막 재발이 가장 많았다. 재발 유무에 따른 분석에서 연령, 크기, 위치, 술식, 육안적 소견, 위벽 침윤도, 전이 림프절 수, 분화도, Lauren 분류, 병기는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자였고, 재발 양상과 관련된 임상병리학적 인자 분석에서는 위치, 분화도, 육안형, 위벽 침윤도, 전이 림프절 수, 병기가 통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자였다. 특히, 병기별 재발률은 stage IA에서 3.86%, stage IB에서 9.46%, stage II에서 22.78%, stage IIIA에서 36.19%, stage IIIB에서 68.53%, stage IV에서 78.68%로 나왔다.

(결론) 재발 위암 환자의 임상병리학적 인자 분석으로 재발 양상과 재발 관련 인자를 알 수 있었으며, 이번 분석에서 의미 있게 나온 임상병리학적 인자들은 위암의 재발을 예견하고, 추적하는 인자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2년 이내의 재발이 많고, 재발 양상 중 근치가 가능한 것은 주로 국소 재발이므로 적극적인 근치적 위 절제술 및 영역 림프절 광청술을 시행하고, 적극적인 추적 조사로 재발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져 위암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전향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